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 실태\*

명 소 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김 두 영\*\*\*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 《 요 약 》

---

이 연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평생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31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나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경험이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공통적으로 부모의 성별, 최종학력, 가족의 전체수입, 그리고 자녀의 장애등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해 과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36.1%, 현재 참여 여부는 10.3%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였고, 참여 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이용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응답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또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서나 장애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주제어 : 발달장애인 부모,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 인식, 참여 실태

---

\* 이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취득논문인 '발달장애인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2016)'의 일부를 수정·재편집한 것임

\*\* 제 1저자

\*\*\* 교신저자 (kdy205@dankook.ac.kr)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2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평생교육이 국제 용어로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평생교육의 개념과 원리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전파되었다(홍기영, 이화정, 변종임, 2006). 이렇듯 오늘날과 같이 평생교육의 개념과 특성이 소개되고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반세기에 불과하지만 평생교육은 이미 전 세계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실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김두영, 외 2016).

우리나라 역시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 이후 평생학습 참여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8년 26.4%, 2009년 28.0%, 2010년 30.5%, 2011년 32.4%, 2012년 35.6%, 2013년 30.2%, 2014년 36.8%, 2015년 40.6%(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로 2013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속적인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평생학습에 더 많은 참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가 감소하였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성인(50.4%)이 중졸 이하의 성인(24.3%)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가구소득에 따른 참여율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의 소득(52.1%)과 150만원 미만 소득(29.1%)의 참여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즉,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늘고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아져서 평생교육이 학교교육과 같이 사회적인 계층화 및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8).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01년부터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8), 2006년부터는 국민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하지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보다 절실한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진정한 학습 소외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두영, 박원희, 2013).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자녀의 부모들은 자신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가 될 것이라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자녀의 부모로서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부모는 장애자녀 양육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 신체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강수정, 정연수, 2015). 또한 장애자녀를 수용하고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데 온 힘을 쏟으며 가족의 희생을 요구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더욱이 장애자녀의 기상에서 취침에 이르기까지 장애자녀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장혜경 외, 2006). 결국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자녀의 부모에 비해 더 많은 양육시간을 요구받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은 물론 평생교육 참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의 가치와 신념은 자녀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제한적이고 협소하면 자녀도 폭넓은 영역에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데 한계를 갖게 된다(김이경, 2012). 또한 행복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자녀의 부모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부모 개인의 역량확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가족의 행복과 가족탄력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양육과 가정교육을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는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달장애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의사결정권자나 자녀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식되어 왔을 뿐, 아직까지 평생교육의 대상자로서 논의되지 않아왔다.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 및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형 개발 등 구체적인 연구들이 정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김두영, 2015), 정작 장애자녀의 부모들을 평생교육 대상자로 인식하여 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를 분석하거나 참여 동기, 참여 저해 요인, 프로그램 요구 등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평생교육 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 실태는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향후 발달장애인 부모를 평생교육 학습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실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2개월 간에 걸쳐 학령기 및 성인기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모두 392부로 회수율은 78.4%이고, 이 중에서 장애유형이 발달장애가 아니거나 답변이 불성실하여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된 설문지 82부를 제외한 310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와 발달장애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부모와 발달장애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영역	구분	빈도(명)	백분율(%)
부모 성별	남	41	13.2	가족의 전체 수입	200만원 미만	43	11.9
	여	269	86.8		200만원~ 400만원	145	46.8
부모 연령	40세 이하	36	11.6		400만원 이상	122	39.3
	41세~50세	196	63.2	자녀 연령	만12세 이하	57	18.4
	51세 이상	78	25.2		만13~만18세	150	48.4
부모 학력	고졸 이하	118	38.1		만19세 이상	103	33.2
	전문대 졸업	67	21.6	자녀 장애유형	지적장애	176	56.8
	4년 대졸 이상	125	40.3		자폐성장애	134	43.2
부모 직업	있다	156	50.3	자녀의 장애등급	1급	146	47.1
	없다	154	49.7		2급	111	35.8
					3급	53	17.1

##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권미정, 2007; 김승현, 2011; 조영희, 2007; 최연숙, 2013 등),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분석(배상미, 2010; 유은주, 2004; 이진경, 2004 등) 및 평생교육 인식과 참여 실태에 대한 학술논문(이경희, 2004; 전주성 외, 2007 등) 그리고 다양한 문헌(홍기형 외, 2006; 한승희, 2006 등)과 선행연구(윤점룡 외, 2010; 최돈민 외, 1999; 최운실 외, 2005 등) 등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문항을 도출하여 1차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후 특수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의 자문과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문항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전체 설문지 구성 내용

영역	내용	문항수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
	1-2. 발달장애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2. 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2-2. 평생교육 용어를 접해 본 경험	4
	2-3.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2-4.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	
	3-1. 과거 평생교육 참여 경험	
3.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3-2. 현재 평생교육 참여 여부	6
	3-3. 평생교육 참여 동기	
	3-4. 평생교육 참여 기간	
	3-5. 평생교육 이용 기관	
	3-6. 평생교육 참여 목적	

## 3. 연구 절차

### 1) 연구 기간

이 연구는 2016년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와 경기도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유·초·중·고

## 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특수학교(급) 교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 2) 설문 문항 개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학위논문(권미정, 2007; 김승현, 2011; 배상미, 2010; 유은주, 2004; 이진경, 2004; 조영희, 2007; 최명옥, 2005; 최연숙, 2013 등)과 학술논문(이경희, 2004; 전주성 외, 2007 등) 등 다양한 문헌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설문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1차 문항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전공교수와 협의의 거쳐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도출하여 2차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특수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공교수 3명과 발달장애자녀의 부모 3명으로부터 문항 선정의 대표성과 적절성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안면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발달장애자녀의 부모 10명에게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표현이 적절한지 검증하였다.

### 3) 예비 조사

설문 문항의 적합성과 가독성을 점검하고 소요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발달장애자녀의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26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질문이 모호하거나 설문 작성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문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연구를 위한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 4) 본 조사

본 조사는 2016년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2개월 간에 걸쳐 서울과 경기지역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부모의 설문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장애인부모 단체에 직접 찾아가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서울 및 경기도 일부 특수학교(급) 교사에게 전화로 협조를 구한 뒤 직접 설문지를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서울 및 경기도 대표지역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자녀의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고, 설문지 회수는 직접 기관이나 학교를 찾아가 회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수거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중 총 392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아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된 28부의 설문지와 자녀의 장애유형이 지체장애인 설문지 54부를 제외한 310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9.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구수입액, 자녀 연령, 자녀의 장애 유형, 자녀의 장애 등급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1. 발달장애자녀 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이 연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평생교육 용어를 접해 본 경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1)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먼저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평생교육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61명(51.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매우 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명(22.0%)인데 반해,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81명(26.1%)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고등학교 교사의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한 조영희(2007)의 연구 결과,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의 3.4%에 지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이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인 교사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조사 시기가 10년 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8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표 3>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빈도(%)

영역	구분	매우 잘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약간 알고 있음	거의 모름	전혀 모름	전체	$\chi^2$
부모 성별	남	2(4.9)	8(19.5)	12(29.3)	14(34.1)	5(12.2)	41(100)	19.336**
	여	15(5.6)	43(16)	149(55.4)	57(21.2)	5(1.9)	269(100)	
부모 연령	40세 이하	3(8.3)	3(8.3)	20(55.6)	9(25)	1(2.8)	36(100)	3.704
	41~50세	9(4.6)	35(17.9)	104(53.1)	42(21.4)	6(3.1)	196(100)	
	51세 이상	5(6.4)	13(16.7)	37(47.4)	20(25.6)	3(3.8)	78(100)	
부모 학력	고졸 이하	1(0.8)	14(11.9)	61(51.7)	38(32.2)	4(3.4)	118(100)	25.971**
	전문대 졸업	3(4.5)	13(19.4)	34(50.7)	12(17.9)	5(7.5)	67(100)	
	대졸 이상	13(10.4)	24(19.2)	66(52.8)	21(16.8)	1(0.8)	125(100)	
부모 직업	있다	11(7.1)	30(19.2)	68(43.6)	39(25)	8(5.1)	156(100)	11.219*
	없다	6(3.9)	21(13.6)	93(60.4)	32(20.8)	2(1.3)	154(100)	
가족 수입	200만원 이상	0(0)	9(20.9)	21(48.8)	9(20.9)	4(9.3)	43(100)	16.368*
	200만원~ 400만원	5(3.4)	25(17.2)	73(50.3)	38(26.2)	4(2.8)	145(100)	
	400만원 이상	12(9.8)	17(13.9)	67(54.9)	24(19.7)	2(1.6)	122(100)	
자녀 연령	만12세 이하	3(5.3)	7(12.3)	35(61.4)	9(15.8)	3(5.3)	57(100)	7.185
	만13~18세	6(4.0)	24(16.0)	76(50.7)	39(26.0)	5(3.3)	150(100)	
	만19세 이상	8(7.8)	20(19.4)	50(48.5)	23(22.3)	2(1.9)	103(100)	
자녀 장애	지적장애	8(4.5)	28(15.9)	93(52.8)	40(22.7)	7(4)	176(100)	1.509
	자폐성장애	9(6.7)	23(17.2)	68(50.7)	31(23.1)	3(2.2)	134(100)	
자녀 장애 등급	1급	14(9.6)	24(16.4)	75(51.4)	31(21.2)	2(1.4)	146(100)	16.937*
	2급	2(1.8)	23(20.7)	55(49.5)	25(22.5)	6(5.4)	111(100)	
	3급	1(1.9)	4(7.5)	31(58.5)	15(28.3)	2(3.8)	53(100)	
전체		17(5.5)	51(16.5)	161(51.9)	71(22.9)	10(3.2)	310(100)	

\*  $p < .05$ , \*\*  $p < .01$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와 부모와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매트릭스한 결과에서는 부모의 성별 ( $\chi^2 = 19.336, p < .01$ ), 최종학력 ( $\chi^2 = 25.971, p < .01$ ), 직업의 유무 ( $\chi^2 = 11.219, p < .05$ ), 가족의 전체수입 ( $\chi^2 = 16.368, p < .05$ ), 그리고 자녀의 장애등급 ( $\chi^2 = 16.937,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최종학력이 낮은 부모보다 높은 부모가, 직업이 있는 부모가, 가족의 수입이 높은 경우, 자녀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부모의 연령이나 자녀의 연령 및 장애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평생교육 용어를 접해 본 경험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영역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경험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chi^2$	
부모 성별	남	27(65.9)	14(34.1)	41(100)	5.576*
	여	220(81.8)	49(18.2)	269(100)	
부모 연령	40세 이하	24(66.7)	12(33.3)	36(100)	5.600
	41~50세	163(83.2)	33(16.8)	196(100)	
	51세 이상	60(76.9)	18(23.1)	78(100)	
부모 학력	고졸 이하	76(64.4)	42(35.6)	118(100)	29.346***
	전문대 졸업	56(83.6)	11(16.4)	67(100)	
	대졸 이상	115(92.0)	10(8.0)	125(100)	
부모 직업	있다	121(77.6)	35(22.4)	156(100)	.866
	없다	126(81.8)	28(18.2)	154(100)	
가족 수입	200만원 이상	32(74.4)	11(25.6)	43(100)	8.006*
	200만원~ 400만원	108(74.5)	37(25.5)	145(100)	
	400만원 이상	107(87.7)	15(12.3)	122(100)	
자녀 연령	만12세 이하	42(73.7)	15(26.3)	57(100)	3.560
	만13~18세	126(84.0)	24(16.0)	150(100)	
	만19세 이상	79(76.7)	24(23.3)	103(100)	
자녀 장애	지적장애	136(77.3)	40(22.7)	176(100)	1.454
	자폐성장애	111(82.8)	23(17.2)	134(100)	
자녀 장애 등급	1급	126(86.3)	20(13.7)	146(100)	7.688*
	2급	83(74.8)	28(25.2)	111(100)	
	3급	38(71.7)	15(28.3)	53(100)	
전체		247(79.7)	63(20.3)	310(100)	

\*  $p < .05$ , \*\*\*  $p < .001$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전체 79.7%(247명)로 10명 중 8명은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생교육 인식을 조사한 유은주(2004)의 연구 결과에서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는

## 1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응답이 전체의 86.7%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약간 낮지만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조사 시기가 2004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경험이 다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및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경험을 매트릭스한 결과에서는 부모의 성별( $x^2 = 5.576, p < .05$ ), 최종학력( $x^2 = 29.346, p < .001$ ), 가족의 전체수입( $x^2 = 8.006, p < .05$ ), 그리고 자녀의 장애등급( $x^2 = 7.688, p < .05$ )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가족의 전체수입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자녀의 장애등급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자녀의 장애등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즉,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3)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평소 평생교육에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응답과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전체의 69.0%로 상당히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의 평생교육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한 이진경(2004)의 연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다소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봐도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모 및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매트릭스한 결과에서는 자녀의 장애등급( $x^2 = 117.126, p < .05$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녀의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응답과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전체의 72.6%로 2급과 3급인 경우에 비해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는 앞서 자녀의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5>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빈도(%)

영역	구분	매우 많다	어느 정도 관심 있다	보통이다	거의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전체	$\chi^2$
부모 성별	남	9(22.0)	16(39.0)	12(29.3)	4(9.8)	0(0)	41(100)	2.014
	여	80(29.7)	109(40.5)	60(22.3)	19(7.1)	1(0.4)	269(100)	
부모 연령	40세 이하	8(22.2)	16(44.4)	8(22.2)	4(11.1)	0(0)	36(100)	8.682
	41~50세	50(25.5)	79(40.3)	51(26.0)	15(7.7)	1(0.5)	196(100)	
	51세 이상	31(39.7)	30(38.5)	13(16.7)	4(5.1)	0(0)	78(100)	
부모 학력	고졸 이하	32(27.1)	45(38.1)	29(24.6)	12(10.2)	0(0)	118(100)	5.713
	전문대 졸업	21(31.3)	31(46.3)	12(17.9)	3(4.5)	0(0)	67(100)	
	대졸 이상	36(28.8)	49(39.2)	31(24.8)	8(6.4)	1(0.8)	125(100)	
부모 직업	있다	44(28.2)	56(35.9)	44(28.2)	11(7.1)	1(0.6)	156(100)	5.950
	없다	45(29.2)	69(44.8)	28(18.2)	12(7.8)	0(0)	154(100)	
가족 수입	200만원 이상	10(23.3)	18(41.9)	10(23.3)	4(9.3)	1(2.3)	43(100)	9.196
	200만원~ 400만원	40(27.6)	61(42.1)	36(24.8)	8(5.5)	0(0)	145(100)	
	400만원 이상	39(32.0)	46(37.7)	26(21.3)	11(9.0)	0(0)	122(100)	
자녀 연령	만12세 이하	16(28.1)	22(38.6)	13(22.8)	6(10.5)	0(0)	57(100)	9.663
	만13~18세	35(23.3)	68(45.3)	35(23.3)	12(8.0)	0(0)	150(100)	
	만19세 이상	38(36.9)	35(34.0)	24(23.3)	5(4.9)	1(1.0)	103(100)	
자녀 장애	지적장애	54(30.7)	64(36.4)	41(23.3)	16(9.1)	1(0.6)	176(100)	4.430
	자폐성장애	35(26.1)	61(45.5)	31(23.1)	7(5.2)	0(0)	134(100)	
자녀 장애 등급	1급	55(37.7)	51(34.9)	27(18.5)	13(8.9)	0(0)	146(100)	17.126*
	2급	25(22.5)	46(41.4)	31(27.9)	8(7.2)	1(0.9)	111(100)	
	3급	9(17.0)	28(52.8)	14(26.4)	2(3.8)	0(0)	53(100)	
전체		89(28.7)	125(40.3)	72(23.2)	23(7.4)	1(0.3)	310(100)	

\*  $p < .05$

#### 4)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향후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94명(30.3%),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162명(52.3%)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부모가 전체의 82.6%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를 매트릭스한 결과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즉,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모두 높은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6>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 빈도(%)

영역	구분	적극 참여 희망	참여 희망	보통	참여 희망 안함	전체	$\chi^2$
부모 성별	남	12(29.3)	20(48.8)	8(19.5)	1(2.4)	41(100)	.826
	여	82(30.5)	142(52.8)	38(14.1)	7(2.6)	269(100)	
부모 연령	40세 이하	11(30.6)	20(55.6)	5(13.9)	0(0)	36(100)	10.524
	41~50세	50(25.5)	105(53.6)	34(17.3)	7(3.6)	196(100)	
	51세 이상	33(42.3)	37(47.4)	7(9.0)	1(1.3)	78(100)	
부모 학력	고졸 이하	31(26.3)	64(54.2)	19(16.1)	4(3.4)	118(100)	10.445
	전문대 졸업	25(37.3)	26(38.8)	15(22.4)	1(1.5)	67(100)	
	대졸 이상	38(30.4)	72(57.6)	12(9.6)	3(2.4)	125(100)	
부모 직업	있다	45(28.8)	78(50.0)	28(17.9)	5(3.2)	156(100)	3.054
	없다	49(31.8)	84(54.5)	18(11.7)	3(1.9)	154(100)	
가족 수입	200만원 이상	9(20.9)	22(51.2)	10(23.3)	2(4.7)	43(100)	11.724
	200만원~ 400만원	55(37.9)	66(45.5)	21(14.5)	3(2.1)	145(100)	
	400만원 이상	30(24.6)	74(60.7)	15(12.3)	3(2.5)	122(100)	
자녀 연령	만12세 이하	16(28.1)	32(56.1)	9(15.8)	0(0)	57(100)	4.884
	만13~18세	41(27.3)	82(54.7)	23(15.3)	4(2.7)	150(100)	
	만19세 이상	37(35.9)	48(46.6)	14(13.6)	4(3.9)	103(100)	
자녀 장애	지적장애	52(29.5)	91(51.7)	26(14.8)	7(4.0)	176(100)	3.184
	자폐성장애	42(31.3)	71(53.0)	20(14.9)	1(0.7)	134(100)	
자녀 장애 등급	1급	46(31.5)	78(53.4)	19(13.0)	3(2.1)	146(100)	4.932
	2급	33(29.7)	57(51.4)	16(14.4)	5(4.5)	111(100)	
	3급	15(28.3)	27(50.9)	11(20.8)	0(0)	53(100)	
전체		94(30.3)	162(52.3)	46(14.8)	8(2.6)	310(100)	

2.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이 연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거의 평생교육 참여 경험,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과거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참여 기간, 이용 기관, 그리고 참여 목적을 알아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거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영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chi^2$
부모 성별	남	9(22.0)	32(78.0)	41(100)	4.116*
	여	103(38.3)	166(61.7)	269(100)	
부모 연령	40세 이하	10(27.8)	26(72.2)	36(100)	1.231
	41~50세	73(37.2)	123(62.8)	196(100)	
	51세 이상	29(37.2)	49(62.8)	78(100)	
부모 학력	고졸 이하	30(25.4)	88(74.6)	118(100)	9.499**
	전문대 졸업	28(41.8)	39(58.2)	67(100)	
	대졸 이상	54(43.2)	71(56.8)	125(100)	
부모 직업	있다	61(39.1)	95(60.9)	156(100)	1.203
	없다	51(33.1)	103(66.9)	154(100)	
가족 수입	200만원 이상	13(30.2)	30(69.8)	43(100)	6.988*
	200만원~ 400만원	44(30.3)	101(69.7)	145(100)	
	400만원 이상	55(45.1)	67(54.9)	122(100)	
자녀 연령	만12세 이하	22(38.6)	35(61.4)	57(100)	1.533
	만13~18세	49(32.7)	101(67.3)	150(100)	
	만19세 이상	41(39.8)	62(60.2)	103(100)	
자녀 장애	지적장애	59(33.5)	117(66.5)	176(100)	1.199
	자폐성장애	53(39.6)	81(60.4)	134(100)	
자녀 장애 등급	1급	60(41.1)	86(58.9)	146(100)	3.029
	2급	36(32.4)	75(67.6)	111(100)	
	3급	16(30.2)	37(69.8)	53(100)	
전체		112(36.1)	198(63.9)	310(100)	

\*  $p < .05$ , \*\*  $p < .01$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 중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6.1%(112명)이고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63.9%를 차지해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부모와 발달장애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과거 평생교육 참여 경험을 매트릭스한

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결과에서는 부모의 성별 ( $x^2 = 4.116, p < .05$ ), 최종학력 ( $x^2 = 9.499, p < .01$ )과 가족의 전체수입 ( $x^2 = 6.988, p < .05$ )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과거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많았고, 부모의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집단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과거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전체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다음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영역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빈도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x^2$	
부모 성별	남	4(9.8)	37(90.2)	41(100)	.016
	여	28(10.4)	241(89.6)	269(100)	
부모 연령	40세 이하	1(2.8)	35(97.2)	36(100)	2.636
	41~50세	23(11.7)	173(88.3)	196(100)	
	51세 이상	8(10.3)	70(89.7)	78(100)	
부모 학력	고졸 이하	8(6.8)	110(93.2)	118(100)	2.680
	전문대 졸업	9(13.4)	58(86.6)	67(100)	
	대졸 이상	15(12.0)	110(88.0)	125(100)	
부모 직업	있다	17(10.9)	139(89.1)	156(100)	.112
	없다	15(9.7)	139(9.3)	154(100)	
가족 수입	200만원 이상	6(14.0)	37(86.0)	43(100)	3.478
	200만원~400만원	10(6.9)	135(93.1)	145(100)	
	400만원 이상	16(13.1)	106(86.9)	122(100)	
자녀 연령	만12세 이하	3(5.3)	54(94.7)	57(100)	5.042
	만13~18세	13(8.7)	137(91.3)	150(100)	
	만19세 이상	16(15.5)	87(84.5)	103(100)	
자녀 장애	지적장애	15(8.5)	161(91.5)	176(100)	1.425
	자폐성장애	17(12.7)	117(87.3)	134(100)	

<표 8>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계속) 빈도(%)

영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x^2$
자녀	1급	18(12.3)	128(87.7)	146(100)	3.119
장애	2급	12(10.8)	99(89.2)	111(100)	
등급	3급	2(3.8)	51(96.2)	53(100)	
전체		32(10.3)	278(89.7)	310(1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0.3%(32명)에 지나지 않아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0.6%로 만25세 이상 만64세 이하 10명 중 4명의 성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평생학습 참여율이란 지난 1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및 발달장애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매트릭스한 결과, 부모의 성별( $x^2 = .016$ ), 부모 연령( $x^2 = 2.636$ ), 학력( $x^2 = 2.680$ ), 직업( $x^2 = .112$ ), 가족의 전체수입( $x^2 = 3.478$ ), 자녀 연령( $x^2 = 5.042$ ), 자녀 장애( $x^2 = 1.425$ ) 및 등급( $x^2 = 3.119$ ) 모든 영역에서  $p > .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다음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이용 기관	빈도(명)	백분율(%)
본인이 자발적으로	60	53.6
친구의 소개	13	11.6
평생교육 기관의 홍보	33	29.5
기타	6	5.4
계	112	100.0





이들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전문적인 평생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부모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해도 장애자녀를 위한 양육 방법이나 교육 방법 등 주제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로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은 장애자녀로 인해 접근 기회가 많거나 다른 기관에서 부모들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표 11> 부모의 평생교육 이용 기관(다중응답)

이용 기관	빈도(명)	백분율(%)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80	48.2
사설 문화센터	25	15.1
동사무소나 구청	16	9.6
도서관	7	4.2
초·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11	6.6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12	7.2
기타	15	9.0
계	166	100

부모 및 발달장애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기관을 매트릭스한 결과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6) 평생교육 참여 목적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37.0%) 또는 장애자녀를 위한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경우 가장 큰 관심사가 자녀 교육일 것이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장애자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타 취미나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여 부모 자신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표 12>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 목적(다중응답)

참여 목적	빈도(명)	백분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	64	37.0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4	2.3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23	13.3
장애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	64	37.0
건강 증진을 위해	15	8.7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2	1.2
기타	1	0.6
계	173	100

부모 및 발달장애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평생교육 참여 목적을 매트릭스한 결과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제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나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해본 경험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공통적으로 부모의 성별, 최종학력, 가족의 전체수입, 그리고 자녀의 장애등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개인 및 여가시간의 부족을 경험하고, 장애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자녀로 인한 스트레스와 장애아동 가족이라는 낙인 및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가족과 친구로부터 소외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Blacher, 1984). 이들은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 외부로부터 소외되기도 하지만 그 소외가 장기적으로 지속

되는 경우, 삶의 의미를 잃어 의욕을 갖지 못함으로써 스스로를 소외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장애자녀 부모의 소외감이나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의 문제는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도 정서적·행동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일차적인 교사이기 때문에 부모의 정서는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아동의 양육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김이경, 2012).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에게 돌봄에 있어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과 그들 자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평생교육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유민하, 2016).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강명희, 2016). 이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게 평생교육의 개념, 필요성, 목적 등의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교육기회 제공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가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환원하여 많은 부모들이 학습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은 지역사회 내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및 시·도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등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이어야 하며, 교육과정에는 평생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은 물론 다양한 참여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를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평생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6.5%를 차지하였고, 이는 부모의 최종학력이나 가족의 전체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10.3%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였고, 참여 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이용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응답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또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서나 장애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이에 교육부는 2001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는 사업 시행의 주체나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소외계층이란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 저학력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을 말한다(이기연, 2014). 이들은 자신들의 취약한 여건으로 인해

국가를 비롯한 공공 영역의 도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여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계층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평생교육 현장의 학습자로 인식하거나 소외계층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왔다(평생교육진흥원, 2012). 그 결과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직까지 평생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평생학습자로 인식하는 동시에 평생학습의 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정책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 19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회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나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가족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혹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등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접근이 용이한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자녀 양육을 위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내용부터 시작하되, 조금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부모들의 자기개발과 사회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하며,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 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연구 대상을 수도권 지역에 한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전국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아울러 세부적인 프로그램 요구나 교육만족도 등을 분석하는 등 후속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명희 (2016). **부모의 장애자녀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수정, 정연수 (2015). 장애부모의 융복합 원예활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3(10), 561-568.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8). **2008 평생교육백서 [제11호]**. 서울.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14·15호 합본]**. 서울.
- 권미정 (200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 실태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영 (2015).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1(1), 21-41.
- 김두영, 박원희 (2013).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4), 1-25.
- 김두영, 박인용, 박미진, 윤지현, 조창빈 (201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부모의 요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1), 37-64.
- 김승현 (2011). 대학생들의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경 (2012). 우리나라 장애아동부모 연구 동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상미 (2010). 성인학습자의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민하 (2016). 평생교육차원에서 본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연구: 보건복지부 산하A기관의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주 (2004).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과 요구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점룡, 양종국, 원성욱, 강병호, 정인숙 (201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이경희 (2004). 노인학습자들의 교육 참여 실태조사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0(2), 49-77.
- 이기연 (2014).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성과 결정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경 (2004). 도시와 농촌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요구 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 (2006). **돌봄노동 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주성, 유은수, 한수연, 이현주, 임희연, 이희송 (2007). 학교평생교육에 대한 현직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한국성인교육학회**, 10(3), 173-197.
- 조영희 (2007). 중·고등학교 교사의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돈민, 이희수, 윤여각 (1999). **평생교육 요구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명옥 (2005). 초등학교 교사의 평생교육 인식과 만족도 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 최연숙 (2013). 당진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실태 및 요구 분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운실, 김현철, 변종임, 최윤선, 김효선 (2005). **평생교육 참여 실태 분석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평생교육진흥원 (2012). **2011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 한승희 (2006).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홍기영, 이화정, 변종임 (2006).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Blacher, J.(1984). A dynamic perspective on the impact of severely handicapped child on the family. In J. Blacher(Ed), *Severely handicapp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New York Academic Press.

## The Perception of and the Stat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yeong, So-Yeon**

Dan-Kook University

**Kim, Doo-Young**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and analyzing the perception of and the stat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n the part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eeking ways to increase those parents' future participation rate in lifelong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forementioned examination and analysis. For this study, 310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surveyed, and the questionnaires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with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understanding degree about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 level of acquaintance with the term of lifelong learning, or lifelong education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low. Those indicators (the understanding degree and the level of acquaintan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he gender of the parents, the highest level of schooling of the parents, total family income, and the degree of disability of the children. On the contrary, the level of interest in lifelong education was very high and the will to participate in it was shown to be very strong. Secondly, the participation rates in lifelong education both in the past and in the future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shown to be very low. In the case of the parents who had ever participated in lifelong education, the answer that they took part in it voluntarily, the answer that the duration of the participation was less than 6 months, and the answer that the institutions they attended were social welfare centers and rehabilitation cent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unted for about half of the total answers, respectively. Also, as for the main purposes of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in order to acquire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in order to get some help with rais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the most frequent answers. Based on the results above mentioned, we discussed some ways to vitalize lifelong education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 Words :**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ception of lifelong education, The state of participation.

---

논문 접수: 2017. 03. 09 심사 시작: 2017. 03. 09 게재 확정: 2017. 05. 18